

● 時 事

도서관, 제 機能 되찾게 되나

編輯者註: 금반 행정개혁위원회의 도서관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자 각 언론기관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주요 일간신문의 사실과 기사 및 해설기사 내용 몇개를 추려서 게재한다.

◆ 조선일보 社說(5월 27日)

書店보다 못한 圖書館

—生活人の 文化市場-文化公園으로—

行政改革委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25일 총리는 도서관對策을 지시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그동안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 풀이, 다행으로 여긴다.

숫자상으로 4천 3백 14개의 도서관이 있다지만, 이 가운데 3천 3백개가 도서관의 이름만 달았거나 有名無實해진 마을文庫 등까지 계산된 걸치레들인 것이다. 公共圖書館은 정확하게 1천 24개 뿐이다. 그나마 자료가 한푼도 없는 곳이 4분의 1이나 되며, 1만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겨우 23개 뿐이다. 또 2백 27개의 전국 市·郡·區 가운데, 그 절반인 1백 17개소엔 도서관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70년대 후반기의 도서관 실태다.

우리는 올해 들어 벌써 두번씩이나(1월 19일자·2월 24일자)이 난을 통해서 도서관을 생활인의 文化公園으로 만들자고 주장했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활용도가 낮은 책의 보관소, 각종 수험준비 입시 준비생들의 공부방 장소 밖에 못되고 있다. 이것은 고전적인 후진성이라기 보다 본래 기능의 마비인 것이다.

도서관은 전문분야를 위한 자료실과 시민의 정보활용을 위한 열람실, 그리고 생활인의 文化公園 역할을 하는 독서실을 여유있게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고전적 의미의 도서관 역할인 것이다.

1백만권에 이르는 대학도서관이 있다해도 공동활용의 기회가 막혀 있다면 死藏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 교환운영체제가 시급하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있지만, 지역 공업단지나 산업기업체와의 연결이 어려우면 효율화가 안된다.

국립 중앙도서관이 있어도, 그 기능역할은 기존도서관리보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書誌정보, 목록카

드, 자료색인, 열람카드의 작업과 보급이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 공공도서관은 優秀圖書 및 良書의 심의 추천의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외국의 우수신간도서賞 가운데 권위있는 것은 도서관의 司書가 중심이 되어 선정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은 독서회나 연구회의 주최자 역할도 감당해야 하고, 최고의 文化商品을 다루는 증지의 지위에서 司書가 보람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專門圖書館이 없다. 文化·兒童專用·科學·歷史·産業·經濟 분야의 전문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문화전문도서관으로는 사운드라이브러리 가 있어서 녹음테이프·음반 등이 공개활용되어야 하고, 필름 라이브러리는 기록영화 등이 대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科學전문, 歷史전문, 산업경제 전문분야에는 제록스施設이 상비되어 있어야 자료훼손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의 국립도서관 보관자료에 먼도갈질이 허다한 것은 복사시설이 구비안된 때문이다.

아동전문도서관은 만화가게로 물리는 어린이나 놀이터가 없어 길바닥에서 노는 어린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여기엔 어린이 공작실이나 생활미술실이 곁들이는 여유를 본떠야 할 것이다. 아동전문도서관의 변형으로, 移動文庫(Mobile Library)의 순회 운영도 본 뜰만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는 이 기회에 圖書館法 등을 강화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지위를 크게 높이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후속지원을 해야만 문헌정보행정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가 文敎部 人事소통을 위한 자리로 대접되어온 관례의 인상부터 고쳐져야 한다.

현재와 먼지만 가득찬 시설이 아니라, 생활인의 文化市場으로 교양인의 文化公園으로, 산업인의 기술센터로서 새로와져야만 제 기능과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中央日報 社說(5월 28일)

公共圖書館의 擴充

한 나라의 文化·教育수준을 圖書館이나 그 도서관

의 藏書數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그것을 가능하는 하나의 尺度만은 됨직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公共圖書館이 형편없이 모자라고 있다해도 施設이 빈약하거나 藏書가 얼마 안된다는 사실은 심히 부끄러운 현상이다.

行政改革위원회가 밝힌 「圖書館改善을 위한 조사報告」를 보면 국내 公共도서관 현황이 質·量 모든 면에서 얼마나 落後되어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고 있다.

현재 公共圖書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 2백 37개 行政地域단위의 반도 안되는 1백 10개 뿐이며 그중에 1만권 이상 藏書를 갖고 있는 곳은 23개 뿐이라고 한다.

인구 33만명에 1개 公共圖書館이 있는 끝인데 이는 先進國은 물론 東南亞諸國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한심한 것은 자료비가 무일푼인 곳이 27개소, 있다곤 하지만 전체의 80%가 1백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까운 장래에 公共圖書館의 설치나 운영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公共圖書館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지역 單位로 住民생활에 필요한 조사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독서회·연구회 등 행사를 주최』하는데 있다.

公共圖書館이란 사실, 이처럼 地域 주민을 위한 文化·教育의 求心點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없거나 걸치레 정도의 시설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의 文化·教育行政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던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때 한국적 농촌 도서관운동으로서 국제적인 주목까지 받았던 마을文庫 설치운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고, 그나마 있는 시설이나 藏書도 보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地域발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중심기구가 없는 文化·教育의 空白期가 너무 길었다는 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재정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나라 文化·教育행정적 소극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行改委보고서는 또 그나마 있는 公共도서관마저 운영이 부실해서 再修生들의 試驗房 노릇밖에 못한다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방 구실이라도 제대로 다했으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公休日이나 放學중의 학생들이 공부 할 자리를 얻고자, 圖書館 앞에서 새벽부터 長蛇陣을 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공공圖書館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는 고사하고 배우고자 하는이에게 조그만 좌석이라도 충분히 돌아가도록 배려한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때문에 일부 분위기가 불건전한 私設讀書室같은 것이 생겨나 社會問題化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는 않다.

公共도서관의 建立과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함께 豫算配定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한편, 地域 주민 자신들도 내고장의 文化機構를 육성하는데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국 百 17개市都 도서관 지을계획 —崔總理지시—

정부는 도서관이 없는 전국 1백 17개 시군에 단계적으로 도서관 및 그 分館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하고 文教部에 도서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崔圭夏국무총리는 25일 『현재 우리 나라의 도서관실태는 책과 장소만을 배려해 주는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등 고전적인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고도산업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서관이 각종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도서관법등 관계법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崔총리는 이날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기능을 강화시켜 전국적인 도서관조직망을 형성, 도서자료의 상호 교환과 공동활용을 도모하고 전문분야별로 분담, 장서를 함으로써 도서 중복구입을 피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崔총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각종 서적정보, 인쇄카드 등을 만들어 전국 도서관에 배부하고 영화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의 시청각자료까지도 구비해서 누구나 이를 이용토록 하라고 말하고 서울대학교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전국 대학도서관에 각종 정보교환자료를 배부토록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1면(5월 25일)

圖書館 저담기구 新設 —改正案마련 필름·音盤·테이프 보관도—

정부는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하는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교부에 도서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도서관이 없는 전국 1백 17개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도서관이나 분관을 증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도서관법, 국립대학교설치령, 공무

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徐廷淳)가 25일 崔圭夏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련, 발표한 「문헌정보행정(도서관)의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도서관을 정점으로 전국 4천 3백 14개의 각종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도서자료를 서로 교환, 활용토록 하며 과학·경제·문화 등 전문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개선책은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서지(書誌)정보, 인쇄카드 등을 새로 만들어 전국도서관에 배부하고 도서관운동을 지도하며 시간도서관만 아니라 영화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 시청각자료까지 보관,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2백 27개소의 시·군·구 중 도서관이 없는 1백 17개소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분관을 설치하며 이의 별도로 이동문고를 운영, 가정이나 직장에서 도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개선책은 또 약 1백만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대도서관을 전국 대학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와 昌原, 龜尾 등 지방공업단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본실을 설치하고 메타 통신망을 가설하여 최신과학기술 정보의 공급을 온·라인(On Line)화 하도록 했다. 경향신문 7면(5월 25일)

문헌情報 개선책에의 기대

—예산 대책 없이는 行政만 번잡—
—館當 33만명, 「수험房」구실도 힘겨워—

국내의 각급 도서관이 수험생들의 공부방 구실밖에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세삼 꺼내기도 쑥스러울만큼 해묵은 것이다.

공공도서관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재수생과 고교생들이 80%~90%를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 도서관도 학기말시험이나 취직시험 공부방으로서의 구실이 주기능을 이루고 있다. 장서가 빈약한 국민학교 도서관은 만화대본소보다 매력을 잃고 있다.

도서관이 모든 文獻情報을 수집·정리하여 각계에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 정보센터이자 모든 문화행사를 포용하는 테크리에이셔널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圖書館 이론은 아예 「사치스런 잠꼬대」같이 들릴판이다.

도서관을 가장 「애용」하는 재수생들에게 가장 큰 바람은 『새벽잠을 설치고 나와 줄을서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열람석이나 늘러달라...』는 정도다.

그런데 80년대를 눈앞에 둔 이제 유명무실한 도서관들의 체질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도서관기능의 보장을 촉구하는 行政改革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全國 文獻情報유통망의 구성 ▲國立중앙도서관의 지도기능 강화 및 자료보강 ▲公共도서관의 증설과 적극적인 활동의 유도 ▲서울 大도서관의 선도적 기능부여 ▲科學技術정보센터의 分室설치 및 온라인化 ▲圖書館정책 기능강화 등을 골자로 한 文獻情報行政(圖書館)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는 4천 3백 14개의 각종 도서관이 있으나 이들이 수직적 및 횡적인 교류가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國立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조직망을 구성, 도서자료의 상호교환과 收書를 분담하게 하려는 것이다.

國立중앙도서관의 지도 기능강화 내용은 이 도서관이 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書誌情報과 인쇄카드 등을 따로 작성하여 다른 도서관에 배부하고 다른 도서관의 운영을 지도할 뿐 아니라 신간도서 외에 영화필름, 음반, 녹음테이프까지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2백 27개의 市·郡·區 중 도서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 1백 17개소나 되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이를 확충하고 거리가 먼 곳의 分館설치, 가정과 직장에 대한 도서대출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圖書館정책기능 강화책으로는 문교부에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부설도서관을 지도·감독하며 司書職의 증원과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백만권의 장서와 현대적 시설을 보유한 서울 大 도서관은 전국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의 공동활용 등을 주관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해방이후 제자리걸음만 해온 우리나라의 圖書館문화는 일단 기개를 결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예산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이 계획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77년 3월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1백 5개중 28개가 연간예산 1백만으로, 53개가 1백~5백만으로 꾸러왔으며 5천만원~1억원 규모의 공공도서관은 5개에 불과했다.

1백만원이하 공공도서관은 말할것 없고 5백만원이하의 예산으로도 장서를 구입하거나 도서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커녕 공부방으로서의 구실도 힘든 것이다. 이런 뼈뺌 예산으로 지난 72~77: 기간중 우리나라는 인구 3천 5백여 만명에 공공도서관 1백 10개로 1館當 인구 33만명이라는 현상을 빚었다. 이 수치는

소련의 1館當 1천 9백 9명이나 덴마크의 5천 1백 47명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필리핀의 10만명, 泰國의 13만명의 3배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1백명當 장서수는 2권으로 소련의 5백 23권, 덴마크의 3백 27권은 말할 것 없고 日本의 45권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泰國의 3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司書들이 부족하거나 司書職을 3급乙 이하로 묶어두는 것도 직접·간접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도서관의 능동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하면 대학의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무관까지이고 그 후는 일반적 으로서 승진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서관학과 출신이 도서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국 51명의 司書職중 도서관학과출신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圖書館강화책은 강력한 재정지원이 없이 제도적인 보완에 그칠 경우 쓸모없는 장서나 늘어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종사자들만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국은 이 강화책을 행정기능의 일부를 보완한다는 자세보다 精神文化開發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폭 넓은 안목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5면(5월 27일)

1979年度 圖書館計發刊에 對備하여

그동안 圖書館統計로서 「한국도서관통계」책이 每年 本協會의 調査實施로 發切되어 왔으나 未備點이 많이 發見되고 있습니다. 實際 基本資料의 調査過程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補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統計冊은 國內唯一의 韓國圖書館統計資料로서 利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本協會는 더욱 무거운 責任感을 가지고 完全한 것으로 補完하기 위하여 꾸준히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現場에서의 基本資料의 未備와 記入의 不確實性 등으로 圖書館現場의 綜合的 파악은 물론 統計解析과 그 應用의 發展을 期할 수 없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現狀은 우리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의 一般的인 추세로서 지난 1970年 유네스코 總會는 이를 重視하여 「國際圖書館統計表 標準에 관한 勸告」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本協會는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권고에 副應하면서 그간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統計의 效果的인 國內利用을 圖謀코자하여 종전의 調査表 樣式을 대폭 增補하여 各圖書館에 發送하였읍니다.

本 調査表 양식의 決定은 教育調査分科委員會에서 作成할 것으로 수차에 걸친 檢討와 研究를 거듭하여 우리나라 統計가 國際圖書館統計 基準에 到達되고 아울러 우리의 實情에 必要한 內家을 포함시키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그러나 統計의 실효성은 무엇보다 基本資料記入의 正確性에 있으므로, 各圖書館에서의 誠意있는 記入이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를 要望하면서 各圖書館에 發送된 調査表 內容을 정확히 이해하여 記入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협회는 그간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한바 있으나 지난 77년부터는 2年마다 실시기로 하여 78年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읍니다. 도서관통계의 정비는 도서관 운영의 基本資料가 되는 것이니만큼 각도서관 운영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본협회의 통계조사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DC」개정에 따른 意見接受

本協會는 「韓國十進分類法(KDC)」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今年中에 그 개정 3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도서관 分類擔當者들의 意見을 종합하여 보다 充實한 內容의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이오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韓國十進分類法(KDC)」을 재검토하여 다음 內容에 대한 의견을 본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主題 및 必要한 項目이 빠진 경우
 - (1) 그 內容 (2) 이를 어느 項目 넣으면 適合한가
2. 각 項目中 展開를 보다 상세히 할 部分과 그 內容
3. 發見된 誤字와 특히 索引中의 잘못된 分類番號
4. 例가 잘못된 部分(分類번호 등)
5. 기타 「KDC」사용중 不充分한 부분이 발견된점 위의 內容에 대한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의견 제출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